

2월23일(월)

제목: 쓴맛 뒤에 반드시 단맛이 옵니다.

사도신경/찬송:205장/요한복음16:15-24

예수님은 잠시 후 제자들이 예수를 못 보겠지만 또 잠시 후에는 그를 볼 것이라고 하셨다(16절, 19절) 잠시 후 못 본다는 말은 9시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실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고 잠시 후 보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여기서 ‘잠시’라는 시간은 9시간과 3일의 시간이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잠시’ 안 보일 때는 애 통한다.(20절) 그러나 ‘잠시’ 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쁨을 얻는다.(22절) 그러므로 앞의 ‘잠시’라는 시간은 기쁨으로 가기 전 거쳐야 할 필연적인 시간이다. 산모는 반드시 산고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새 생명이 탄생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의 ‘잠시’라는 시간은 신나며 반가운 시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잠시’ 후에 올 복을 예표하기 때문이다. 빛을 보려면 어두움을 빠져야 한다. 고통 없이 기쁨이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영광을 얻고 싶으면 눈물을 흘려야 한다. 하나님은 단맛을 주기 전에 쓴 맛을 보게 하신다. 현재의 어두움은 새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거쳐야 할 필연적인 타임일 뿐이다.

2월24일(화)

제목: 예수님께서 길을 터주셨습니다.

사도신경/찬송:492장/요한복음16:25-28

예수님은 그동안 비유 즉, 암시와 상징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래서 영리한 사람들만 그것을 이해하였다. 그러나 이제부터 사람들에게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 분명하게, 쉽게, 직접적으로 가르치겠다고 하셨다.(25절) 그가 분명하게 가르치겠다고 한 내용이 무엇인가? 두 가지이다. 한 가지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이다.(28절)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다.(26절) 즉,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 이제는 성도가 원하는 바를 예수님이 대신 들고 하나님을 찾아갈 일이 없게 되었다. 성도의 기도를 예수님이 대신 들고 가서 하나님께 아뢰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제는 성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길을 터 주셨다. 이리하여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나에게 열렸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별의 별 문제를 다 들고 하나님을 찾아간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직행 코스의 길을 터주셨다.

2월25일(수)

제목: 용서와 신뢰

사도신경/찬송:28장/요한복음16:29-33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부인하게 될 때가 오리라고 말씀하셨다.(32절)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33절)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게 될 것이지만 그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임을 약속하셨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한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러한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신뢰하신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에게 처참하리만큼 비열해질 것을 알고 계셨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리라는 것을 미리 예고 하셨다. 사람은 자기에게 죄를 범한 누군가를 용서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를 다시는 신뢰하지는 않는다. 심지어 부모도 비열한 자기 자식을 용서는 하지만 믿어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용서하시며 동시에 신뢰하신다. 이 세상 어느 곳을 가 봐도 용서와 신뢰가 이처럼 밀착되어 있는 곳은 없다. 우리는 한 개만 받아도 감사한대 두 개 다를 몽땅 받았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2월26일(목)

제목: 사랑은 표현해야 합니다.

사도신경/찬송:340장/요한복음1:1-18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1절)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2절)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었다(3절) 이 말씀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끝난 사랑이 아니었다. 그 사랑은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3:16) 즉 하나님은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를 취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즉,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것이었다(14절)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육체적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물질적이었다. 하나님은 말로만,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않으셨다. 마음으로만, 말로만 하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매우 실제적이어야 한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물질로, 육체적으로 나타내셨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말로만 하는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물질로, 몸으로, 구체적인 것으로 표현해야 참 사랑이다.

2월27일(금)

제목: 매일 청소합시다.

사도신경/찬송:480장/요한복음1:19-28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세례요한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했다.(19절) 그가 혹시 구약의 엘리야나 혹은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했다.(21절) 그러나 세례요한은 자신을 메시아의 길을 알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라 하였다. 즉 그는 곧 오실 메시아를 알리는 '스피커'(speaker)일 뿐이라 하였다. 세례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준비하는 사람이었다(23절) 여기서 그 길을 평탄케 준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것은 요단 강에서 베푸는 그의 세례였다.(28절) 본래 세례는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방인에게만 행하였다. 본래 유대인이 세례 받는 일은 없었다. 그는 그런 세례를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다. 그것은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새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준비시키는 행위였다.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작업이었다. 왜냐하면 예수님(메시아)은 새로워진 마음에, 깨끗하고 정결해진 마음 속에만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매일 매일 자복하고 회개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매일 청소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